한국불교, 인도를 장엄하다

조계종 총무원 · 주인도대사관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서 특별전

수교 50주년 교류행사 하이라이트 연등회, 미디어아트, 사진 등 전시 진우 스님 "불교 멋과 맛 체험하길" 인도 학생들 韓불교 체험 '엄지 척'

인도 뉴델리=신성민 기자



조계종과 주인도 한국대사관은 3월 22일 인도 뉴델리에 소재한 인도 국립현대미술관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전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을 개막했다. 사진은 주요 내외빈이 개막 커팅식을 하는 모습.



주경 스님과 범종 스님을 비롯한 내외빈들이 전시장을 라운딩 하고 있다.



인경체험을 끝낸 인도 현지 학생이 자신이 작품을 들어보이고 있다.

"문화교류 공덕으로 한국과 인도가 부강하고 국민들은 안락하며 정치경제 사회문화 무궁하게 발전해 세계를 이끌어 가고 불교인이 날로 늘어 부처님처럼 모두 자비로운 사람들 되어 날마다 평화롭고 행복하길 발원합니다."

조계종 어산종장 동환 스님의 화청이 부처님의 나라 인도 수도 델리 한 복판에서 울려 퍼졌다. 한국과 인도의 우호 증진을 발원한 동환 스님의 화청에 사부대중은 합장하고 경청했다.

연등회, 산지승원, 수행 등 한국의 불교문화를 인도에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인도에서 열렸다. 동진(東進)해 한반도에 전해진 부처님의 가르침이 1700년 동안 사상, 문화의 열매를 맺어 다시 부처님의 나라인 인도에 소개된 것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진우)과 주인도 한국대사관(대사 장재복)은 3월 22일 인도 뉴델리 인도국립현대미술관(NGMA)에서 한국-인도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문화를 만나다' 특별전을 개막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사회부장 범종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 장재복 주인도대사,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조명희 ·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 김병주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불교, 한국과 인도의 연결고리"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사회부장 범종 스님이 대독한 개회사를 통해 한국 불교문화의 진수를 체험하길 권했다.

진우 스님은 공동개회사에서 "한국불교 1700년 역사에는 인도로부터 전해진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다.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을 기념해 한국불교 문화가 인도 국민들에게 생동감 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문화교류 행사 전시회를 준비했다"면서 "이번 전시회를 통해 마음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부처님의 자비로움과 그 가르침을 이어 온 한국의 전통문화를 만끽하시길 기원한다. 나아가 한국불교의 멋과 맛을 음미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재복 주인도대사도 공동개회사를 통해 "4세기 한반도에 전래된 불교는 한국인의 생활방식, 사상과 예술, 문화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를 언급하지 않고서 한국의 예술과 문화를 이해할 수 없다"고 상찬하며 "불교는 한국과 인도의 영원한 연결고리로 두 나라의 파트너십의 기반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한국과 인도가 긴밀한 우정을 쌓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템수나라 트라파티 인도국립현대미술관장은 환영사에서 "불교는 인도와 한국에서 문화 형성의 중요한 원천이었다"면서 "이번 전시는 한국불교와 인도불교의 문화적 유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축사를 통해 지속적인 우호를 기원했다. 주경 스님은 "전 세계 불교도에 있어 인도는 진리의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지이며 마음의 고향"이라며 "오늘의 우호행사를 계기로 인도와 한국불교계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연대와 협력의 토대를 쌓아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 불교문화 면면 알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연등회의 전통등과 한국 불교의례의 상징인 괘불을 매개로 한 미디어아트가 소개된다. 전통등은 연꽃등과 전통 법구인 사물을 현대적으로 형상화한 장엄등이 전시됐으며, 미디어아트는 부석사와 화엄사, 은해사의 괘불을 소재로 한 작품 3점을 선보인다.

불교 전문 사진작가인 하지권 작가의 작품 73점도 인도인을 만난다. '한국불교, 인도를 걷다' 를 소주제로 열리는 사진전은 석불과 수행자의 삶, 사찰음식, 템플스테이, 유네스코 등재 불교문화재가 소개된다.

이에 대해 문화사업단 덕운 스님은 "이번 특별전에는 등간, 대형 장엄등과 연꽃등, 연등회 참가단체가 직접 만든 행렬등과 연등행렬을 재현한 닥종이 인형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또한 사진전에서는 한국불교 수행자의 삶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전통불교문화체험으로써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석불, 유네스코 등재 산지승원(Sansa) 등의 사진을 보실 수 있다"면서 "부처님의 땅 인도에서 한국전통불교문화를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인도 Z세대 "K-불교 알게 됐어요!"

한국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는 소식에 전시회는 개막부터 현지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특히 'K-컬쳐' 에 매료된 젊은 인도 현지 학생들이 많았다.

인도 한국문화원에서 사물놀이를 배우고 있다는 야시타 씨는 "역사학을 전공한 학생으로 델리대에서 현재 불교를 연구 중이다. 특히 다양한 나라의 불화를 감상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불교는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해졌는데, 불교가 한국에 전해져서 어떻게 변화되고 정착됐는지를 알 수 있는 전시였다. 개인적으로 올해 열리는 전시 중 단연 최고"라고 밝혔다.

삼삼오오 친구들끼리 전시를 찾은 학생들도 많았다. 델리대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안젤리와 하위카 씨는 "평소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 문화에 대해 알 수 있어 너무 좋았다. 불교 경전을 인쇄해보는 경험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자주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문화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부남후알, 기타, 만디, 심른, 아디쉬리, 애리시타 씨는 한국불교 전통등에 매료됐다. 이들은 "한국드라마, 음악을 좋아해서 한국문화를 자주 접했지만, 템플스테이나 연등회는 알지 못했다"면서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연등회의 전통등이 매우 아름다웠다"고 말했다.

특별전은 오는 4월 30일까지 한달 간 열리며, 전시 기간 중에는 인경 체험, 연꽃등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식재료 알기=나를 아는 것 사찰음식은 수행과도 맞닿아"

문화사업단, 찬디왈라 조리대학서 사찰음식 강연

"사찰음식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과 같습니다."

한국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한국불교 특유의 식문화와 음식관에 대해 전했다. 인도의 미래 쉐프들은 스님의 강의를 경청하며 한국불교의 정신을 알아갔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명)은 3월 23일 인도 현지 조리학교인 찬디왈라 조리대학에서 정관 스님을 강사로 사찰음식 강연 및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관 스님은 한국불교 특유 사찰음식의 정의와 음식관, 수행과의 관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은 수행자들을 위한 음식"이라고 정의하며 "수행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음식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자타의 유미죽 공양으로 수행하고 정각(正覺)에 이르렀음을 상기했다.

정관 스님은 "유미죽을 공양받은 붓다는 49일 정진해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에 이르렀다. 정각 이후 붓다는 '고행이 전부가 아니다. 잠자고 먹고 수행하자' 고 했다"면서 "정신과 육체적 에너지를 연결해주는 것이 바로 음식이다. 음식은 곧 에너지"라고 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이 곧 수행"임을 학생들에게 강조했다. 음식을 요리한다는 것은 곧 식재료의 본질을 찾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이다. 식재료가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길러졌는지 등을 바로 알아야 그 재료를 어떻게 조리할 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정관 스님은 "식재료를 알아가는 것과 나 자신을 알아가는 수행은 같다. 저의 경우에는 사찰음식은 깨달음으로 이르는 수행"이라고 밝혔다.

이어 "붓다는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 일종식, 탁발공양을 권했다. 한국불교의 발우공양은 붓다의 지혜가 있다. 내가 먹을만큼의 음식을 먹고 설거지까지 끝내는 것"이라며 "붓다의 자연보호 생명존중 사상을 음식문화에 담아냈다"고 설명했다.

정관 스님은 사찰음식에 대한 개론 강의 이후에는 스님의 시그니처 메뉴인 표고버섯조청졸임과 두부장채소겉절이를 시연했다.

정관 스님의 사찰음식 강의에 현지 학생들은 많은 관심을 보였다. 수잔 싱(호텔조리학부 2학년) 씨는 "한국의 사찰음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서 강의 전 관심이 많았다"면서 "향후 제 요리 레퍼토리가 더 다양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 강의 한국불교 식문화, 정신 전달해 고엔카大, 한국문화원서 시연도

강의에 앞서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덕운 스님은 R.K.반다리 찬디왈라대 조리대학장을 만나 환담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덕운 스님은 "주인도한국문화원과 협력해 매년 한식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식에 관심이 높은 찬디왈라대를 방문해 사찰음식 강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특강을 계기로 한식콘테스트 우승자들에게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관 스님은 고엔카대학-르꼬르동 블루 인디아(3월 24일)와 주인도 한국문화원에서도 사찰음식 강연회를 진행한다.

인도 뉴델리=신성민 기자



사찰음식 명장 정관 스님이 찬디왈라 조리대학서 사찰음식 강연을 하고 있다.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8교구 본사 참사람 수행도량
白巖山 白羊寺
주지 걸안 무공
사부대중일동
주소 : 전남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http://baekyangsa.templestay.com/
전화 061)392-7502 기도접수처 061)392-0100 팩스 061)392-2081

한국불교 중흥의 대장정
상월결사 인도순례의 원만회향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청 계 사
사부대중일동
경기도 의왕시 청계로 475 (청계동) 전화 031)426-2348, 2221 / Fax 031)426-3666